

제 목	국 문	응급실 환자의 중증도가 응급실 재원시간에 미치는 영향		
	영 문	Length of stay in Emergency Room by severity of patient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황정해 ¹⁾ , 조성현 ¹⁾ , 김창엽 ²⁾ 1) 서울대학교병원 QA전담반 2)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영 문	Jeong-Hae Hwang ¹⁾ , Sung-Hyun Cho ¹⁾ , Chang-Yup Kim ²⁾ 1) QA off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 Dep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황정해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96년 10월			

1. 연구 목적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의학적으로 위급한 경우로 적절한 진료제공 뿐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응급실의 기능이 중증의 질환을 가진 환자의 초기 관리와 인구집단내 일차의료의 기능을 함께지고 있어 어느 나라에서나 만성 과정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작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입원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응급실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중 특히 빠른 조처가 필요한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의 비율과 이들의 응급실 재원시간을 비중증질환자와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일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99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 방문한 환자 1498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하였다.

응급실 도착시간에서 입원, 귀가, 수술, 사망 등 응급실을 떠날 때까지의 시간을 재원시간으로 하였다. 방문결과가 중환자실(심장계중환자실 포함)입원과 수술, 사망으로 나타난 환자들은 중증질환자로, 기타 다른 환자들은 비 중증질환자로 구분하였다.

성별, 연령별, 재원시간대별, 최초진료과별, 주 호소별, 진단명별 평균재원시간을 살펴보고 이중 중증질환자의 재원시간과 비중증질환자의 재원시간을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 1) 전체 평균재원시간은 1358분(22.6시간), 일 평균 환자수는 50명으로 나타났다.
- 2)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의 전체 평균은 남성이 846명, 여성이 65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수가 많으며, 성별 평균 재원시간의 차이는 없었다.
- 3) 연령별 평균재원시간은 10세-20세가 785분(13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50세-60세는 2180분(36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원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 4) 응급실 방문환자수는 0시-8시 사이가 225명, 8시-16시 사이가 765명, 16시-24시 사이가 463명으로 나타났으나 각 시간대별로 조사한 결과 평균재원시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전체 1498명의 환자중 중증질환자는 68명(4.6%)으로 평균재원시간은 983분이었으며, 비중증질환자는 466명(31.6%)로 평균재원시간은 2357분이었다. 집으로 귀가한 환자는 883명(59.9%) 평균재원시간은 1344분으로 나타났다. 이들군의 평균재원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응급실 방문환자중 중증질환자는 4.6%로 미국 동일 수준의 대학병원의 8.5%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오히려 귀가 조치가 취해진 환자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증질환자의 평균재원시간이 비중증질환자에 비해 짧게 나타나긴 했으나 그 시간이 무려 13시간으로 나타나 역시 미국 동일 수준의 대학병원의 2시간에 비해 6배나 길게 나타났다.

응급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응급실내 환자의 중증도에 대한 간단한 분류체계와 이에 따른 응급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증질환자의 응급실내 처치와 더불어 입원 뒤 결과(outcome)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